

1교시 : 페렐만과 톨민의 논증 모델/이론

2교시 : 학술적 논증 vs. 레토리컬한 논증

1. 몇몇 어휘들

1) persuade (v.) 설득(說得)하다

convince (v.) 납득(納得)시키다, 설복(說服)하/시키다

cf) 중국어: 說得(说得, shuōde), 說服(说服, shuōfú), 同意(tóngyi), 勸說/劝说[quànshuō]

2) argument (논증, 論證)

argumentation (논증 행위, 논변[論辯])

demonstration ([수학적] 입증, 증명)

2. 현대의 논증 이론

1) 페렐만(Chaim Perelman, 1912-1984)

- 주요 저서 Rhétorique et philosophie (1952) (with Lucie Olbrechts-Tyteca)

- 내용

/ 레토릭에서 "표현" 및 "수식" 함의 제거, 철학과 레토릭의 대립을 해소하려 함

/ 동질적 청중(the particular)과 보편적 청중(the universal) 개념:

동질적인 청중은 연설자가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대중인데, 신체적으로 연설 공간에 참석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보편적 청중은 모든 이성적인 인간들로 구성되며 아마도 모든 인간이 포함되며 이 정신적 개념은 연설자가 의해 구성된 것이다. 보편적 청중은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 그것은 논증과 호소의 선택에 도움을 주며 또한 좋고 나쁜 논증을 구별하기 위한 규범이나 기준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의의와 문제점

/ 의의: 레토릭의 복권 upon 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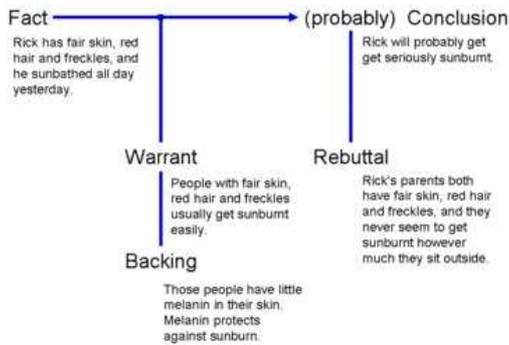
/ 문제점: "보편 청중" 개념이 과연 적실성이 있는가: 현실에서의 청중의 다양성/이질성 & 타자/적/불특정 다수와의 논쟁

/ 더 생각해 볼 점: (정치적) 적을 포함한 논쟁 상대자와 공유하고 있는 기반은 무엇인가?

in ex) 남한 내부, 한반도, 미국 vs. 이슬람

2) 톨민(Stephen E. Toulmin, 1922-2009)

- 주요 저서 The Uses of Argument (1958, 2nd)
- 논증의 명징성(explicity)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논증 모델을 구축하려 함
- 톨민의 논증 모델



/ 주장(Claim): 어떤 이슈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명제 형식으로 표현한 진술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기를 바라는 논증의 결론

/ 근거(Grounds):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cf) 사실(Fact), 자료(Data)

/ 보증(Warrant, 보장): 근거가 주장에 합당함을 정당화시켜주는 일반적인 원리나 가치를 보증이라 한다. 근거가 구체적인 사실임에 비해서, 보증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존중되는 원리나 가치로서 근거가 주장에 연결됨을 보증

/ 지지(Backing, 보강/뒷받침): 보증들 배후에 있고, 이것들 없이는 통상 보증 자체가 어떠한 권위도 지니지 못하게 되거나 통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

cf) 보증과 지지의 차이: 보증은 가언적, 다리 역할; 도덕적, 실천적 성격/역할, 지지는 사실에 관한 정언적 명령 형식

/ 반박 조건(Rebuttal/Reservation, 배제 사유/ 유보): “보증의 일반적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viz. 반박가능성

/ 한정(Qualification): “자료가 보증으로 인해 주장에 전달하는 힘의 정도”

- 장점과 단점

/ 장점: 논증(행위)를 평가할 때 구분된 논증(행위)의 공통 요소 별로 평가 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 단점: 다소간에 형식적이다.

그다지 생성적, 생산적이지 못하다.

3. 레토리컬한 논증

1) 전통적 논증 모델

a. 삼단논법(syllogism) or 연역법(deduction)

대전제(major premise)

소전제(minor premise)

결론 (conclusion)

A이면 B이다.

사람은 죽는다

C는 A이다.

나눅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C이면 B이다.

그러므로, 나눅은 죽는다

(“반드시”)

연역법의 문제: “이미 전제에 들어있는 걸 뭐 하러 끌어내나?”

“전제는 어떻게 아나?”

b. 귀납법(induction)

A1은 B이다. A2는 B이다. A3은 B이다...

그러므로 모든 A는 B이다.

귀납법의 문제: 모든 사례를 열거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 귀납적 탐구의 근거: J. S. 밀 -- ‘자연의 제일성(齊一性)(the uniformity of nature)’

--> 오늘날, 확률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룬다.

“그러므로” --> “대개” “개연적으로” “n%의 확률로”

2) 생략 삼단논법 or 레토리컬 삼단논법(enthymeme [énθəmi:m])

a. 어원: en "in" + thymos "mind“

b. 삼단논법에서 전제(or 전제 및 결론)가 생략된 것

모든 곤충은 다리가 6개다.

(말벌은 곤충이다) [생략]

말벌은 다리가 6개다.

(유기농 식품은 건강에 이롭다) [생략]

A는 유기농 식품이다.

(A를 사먹어라) [생략]

3) 가추법(abduction, 가설추리법)

흄스는 가추법을 ‘거꾸로 추론해 나가기(reasoning backward)’로

철학자 퍼스는 ‘귀환법(retroduction)’이라고 부름

* 퍼스가 일반화한 가추법 모델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된다

그런데 A가 사실이라면 C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A가 사실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 미술품 감정에 적용된 가추법 사례

조르조네의 진품들에 묘사된 인물들은 같은 특징의 귀를 가졌다.

드레스덴의 비너스는 조르조네가 그린 특징의 귀를 가졌다.

그러므로 드레스덴의 비너스는 조르조네가 그린 진품이다.

4) 연역, 귀납, 가추의 비교

<연역법>

규칙 : 아궁이에 불을 때면 굴뚝에 연기가 난다.

사례 : 아궁이에 불을 땀다.

결과 : 굴뚝에 연기가 난다.

규칙: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완두콩은 모두 하얗다

사례: 이 완두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결과: 이 완두콩들은 하얗다

<귀납법>

사례 : 아궁이에 불을 땀다.

결과 : 굴뚝에 연기가 난다.

규칙 : 아궁이에 불을 때면 굴뚝에 연기가 날 것이다.

사례: 이 완두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결과: 이 완두콩들은 하얗다

규칙: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완두콩은 모두 하얗다

<가추법>

결과 : 굴뚝에 연기가 난다.

규칙 : 아궁이에 불을 때면 굴뚝에 연기가 난다.

사례 : 아궁이에 불을 때는구나.

결과: 이 완두콩들은 하얗다

규칙: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완두콩은 모두 하얗다

사례: 이 완두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확장된 가추법>

결과 :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규칙 : 아궁이에 불을 때면 굴뚝에 연기가 난다.

사례 : 아궁이에 불을 때었다.

--> 굴뚝이 막혔다 or

--> 집 안 어디론가로 연기가 샌다.

4. 나머지

1) “반증가능성”(칼 포퍼): 반증될 수 있어야만 과학이며
반증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참이다.

2)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3) 기타 여러 가지 레토리컬한 논증들

in <레토릭 사전(レトリック事典)> (大修館書店, 2006)

양도논법(兩刀論法)

동의순환(同義循環)

인용법(引用法)

설문법(設問法)

예방논법(予防論法) · 가설논법(假說論法)...

4) 오류 추리가 지니는 일상적 설득력

ex) 성급한 일반화, 대인논증...